

선생님께서는 CT사진을 돌려이었습니다. 좋고 시간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씩 장을 잡았지”

“리 선생님. 저에게 사진을 주시겠나요? 그리고 의사소견서도 주시고요” “그리고 퇴임하고 변화도

성격자체가 조용한 분이어서 말없이 진찰 서류들을 넘겨주시고 앞에 놓여있는 차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진과 소견서를 보면서 “폐암 그것도 소 폐포 암의 3기”라는 의사소견서를 읽고 자료들을 다시 넣어서 리 선생님에게 돌려 드렸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는 리 선생님을 보면서 들어오는 간호사에게 잠시 진료시간이 2시간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반 환자분들은 다른 닥터에게 진료를 부탁하고 저는 다시 리 선생 앞에 앉았습니다. “없는데…….”

저는 진료실에는 진료하는 닥터 책상 말고 환자와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한 작은 소파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 듣고 있던, 쇼 리가 대화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리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지 않았나요?” “저의 아버님이 매일 동쪽에 있는

쇼리 말에 이 선생님은 약간 변명 하는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 때는 늘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공무원 때는 늘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퇴임 이후 새로운 유치원에 출근 전까지…약 10년 이상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지” 중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절약정신(?)이 너무 뛰어나서 돈 들어가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보험이 없으면 정기 검사는 개인 부담이기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흉부CT 한번 검사하는데 인민비 8000원(한화 150만원)정도 입니다. 한달 월급이 3~4000원(한화 70~80만원)정도 계산을 하면 치료비가 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몸 전체 검사하려면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나이 들면 놀려 다니는 것이지……”

“지금 담배를 피우시나요?” “피우신다 공계라고……매일 피우는데……그러나 담배를 피우

“학교에 일 할 때는 조금 피웠는데…퇴직하면서 공터에서 노인들과 놀면서 10년간 피운 담배가 일하면서 40년간 피운 담배 보다 많았던 것 같네, 집에 노는 것이 건강에도